

수모섬유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알파카 수편 스웨터라던가 베스트는 소재로써 고급품을 느끼게 한다. 알파카의 털이 지니고 있는 색상, 즉 소재감은 17가지 색이라고 하여 수모 중에서 제일 많다. 알파카의 내추럴한 6가지 색상이라고 하면 흰색, 베이지, 카멜, 진한갈색, 그레이, 검정이다. 페루산 수편니트는 이들 색을 배합하여 모양을 내고 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감이 매력적이다. 무지의 직물 옷감으로써도 알파카의 소재색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여 질감을 생기게 하고 있다. 알파카는 부드럽고, 매끄럽고, 광택과 누메리감이 있으며 하리가 있어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안감 알파카의 오리지널은 경사에 면사, 위사에 알파카를 사용하여 평직이나 능직으로 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양모사가 알파카사로 대체되고 있다.

1 알파카(alpaca) <Lama pacos>

알파카(alpaca) <Lama pacos>는 낙타과의 포유로써 남아메리카의 칠레, 페루,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악지대(해발고도 4,200~4,800m)에서 사육된다. 라마보다는 작으며 몸길이 1.2~2.3m, 어깨 높이 94~104cm, 무게 55~65kg이다. 등이 약간 둥글고 꼬리가 늘어져 있다. 털 길이 40cm로지면 가까이까지 늘어지는 것과 그리 길지 않은 품종이 있다.

털 빛깔은 흑색, 갈색, 백색 등으로 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보통 연중 방목을 하는데 털을 깎을 때는 주택 근처로 옮긴다. 임신기간 약 11개월, 한배에 1마리를 낳는다. 면양보다 털의 양이 적으나 공기가 희박한 곳에 적응되어 있으므로 식용 및 모용으로 사육된다. 털은 카펫이나 의류에 이용된다.

직물명으로 알파카는 경사에는 면사, 위사에는 알파카의 실을 써서 짠 직물을 말한다. 알파카의 광택이 나타나서 독특한 태를 가진다. 검은색, 갈색과 같은 단일 색깔의 것이 많고, 여름 옷감외에 안감으로 쓰인다. 근래에는 합

성섬유를 사용하여 알파카를 닮은 직물을 만들고 있다.

캐시미어의 광택과 누메리감은 몹시 탐나는 것이다. 때문에 캐시미어가 들어 있다던가 캐시미어를 값싸게 제공한다 등은 사람의 마음을 끈다. 캐시미어는 양의 털은 아니고 캐시미어 산양의 털이다. 수모의 일종으로써 고급 부류이다. 옷감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모에는 캐시미어 이외에도 모헤어(양골라 산양의 털), 알파카 양골라(양골라 토끼의 털), 카멜(낙타) 등이 있다. 이들 수모를 동물헤어라고도 한다. 수모의 대부분의 경우는 양모와 혼방, 교직 등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량밖에 생산되지 않고, 고가이며 방직이 어렵고 실용적이 아닌 점 등이 있다. 혼방이라 함은 양모와 섞어서 한 올의 실로 방직하는 것이다. 교직이라 함은 양모사와 함께 사용하여 제직하여 천으로 한 것이다. 캐시미어에는 캐시미어 100%가 있다.

이것은 고가이다. 일반적으로는 경사를 소모사로 하고 위사를 캐시미어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 하여 캐시미어사가 천의 표면에 많이 나타나도록 하여 언뜻 보아 캐시미어 100%라고 덧 쓰여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캐시미어 혼용율은 50% 이하이기도 한다. 캐시미어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양이 섞여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캐시미어의 품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캐시미어라고 하여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다.

2. 수모헤어 : 동물의 체표(體表)에 나 있는 털을 깎아 만든 동물섬유.

의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양모이고, 이 밖에 산양, 낙타, 토끼, 말, 알파카, 라마 등의 털이 사용된다. 섬유는 단백질로 이루어지고, 그 섬유 표면에는 물고기비늘 모양의 스케일이 있어서, 축축한 상태에서 비비면 펠트화하는 것이 많다.

섬유 탄력성이 풍부하고, 보온성이 풍부한 천을 만들기 쉬우며, 흡습성이 높은 반면, 스케일 표면의 납질 때문에 발수성을 가진다.